

효성출판사가 실용전문출판사로 자리를 지켜온 지 20여 년. 2004년,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효성주니어를 발족한 것은 아동 전문 출판사로서의 새 길을 트기 위해서였다. 효성주니어의 책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리라는 기대가 담긴 희망브랜드인 '책코파이'를 내세워 출간한 첫 책은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해 권수도 9권으로 한 질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실속도 녹록찮은데 이은영 편집장은 책 자랑에 앞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을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만화 속에 담긴 도서관 100퍼센트 활용법, 도서관이 미래다, 국력이다!



도서관의 '편견' 떨치고 효율적인 활용법 권하는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 (전9권)

“그 중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토론, 논술에 근본이 되는 활동은 단연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려면 책을 봐야 하고 책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책이 필요하면 서점에 가지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의 역사를 아는 사람도 몇이나 될까요?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말살된 우리나라 도서관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도서관은 없는 채 학교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6,000개교의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편집장은 “진작 추진됐어야 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지역 도서관의 극히 적은 수도 그렇지만 있더라도 구비시설이 잘 돼 있지도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는 공부하는 곳, 익숙한 곳이라고 여기며 쉽게 받을 들이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편견'을 떨쳐주기 위해 기획됐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도서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1권 《첫발견 도서관》을 시작으로 2권 《도서관을 정복하다》, 5권 《학교 도서관 문화체험기》, 8권 《세계로 통하는 도서관》, 9권 《유킴리드에서 유비쿼터스까지》 도서관의 역사, 이용, 문화, 외국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했다. 애초에는 한두 권 정도로 도서관 활용법만을 다루려고 했던 게 조사하다보니 가르쳐야 할 게 많아 규모가 확장됐단다. 9권 모두는 주인공 '도식봉'이 친구들과 함께 사시교사를 따라 도서관을 체험하는 형식이다. 자료 수집만 해도 쉽지 않았을 터, 이 편집장은 “대부분이 번역물뿐이어서 국내 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없는 자료를 찾고 뒤질수록 이 시리즈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나마 논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문건도 참고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각 지역별로 한 구씩 다녀보면서 본 것은 열악한 시설과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모습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다 합쳐도 그 수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보다 적어요. 게다가 미국 학생들은 학교에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다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학교수업은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도서관에 구비돼 있는 책들은 남풍업자가 덩핑으로 들여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지요. 시리즈를 위해 여러 외국 도서관을 접하면서 도서관을 제대로



효성주니어 이은영 편집장.

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심도 느껴졌습니다.”

이 편집장은 민족사관고등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교정 곳곳에서 자유로운 자세와 분위기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회상하며 독서가 열람실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탐구활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도서관은 신청받은 책들을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서비스조차 모르는 게 대부분이어서 도서관문화와 이용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국 도서관에서 정규직으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곳은 2.7퍼센트일 뿐, 학교 교사들끼리 ‘당번’ 식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사서교사야말로 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식견으로 양질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들여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필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전문적인 사서교사의 채용은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역할과 중요성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각 권마다 사서교사를 등장시킨 것도 그러한 의도 때문이다. 책 속에서 주인공 석봉이는 사서교사와 함께 고대도시로 가 최초의 도서관을 체험하고 과거와 미래도서관의 구성구석을 전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아낸 것은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가 처음이다. 1년여의 취재기간이라는 고된 작업만큼 성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사서교사와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추천을 받는다고, 이 편집장은 “판매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각 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 도서관의 올바른 활용법

을 깨달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이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욕심 일까요. 사실 만화라도 썩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 무더기의 논문을 읽고 아이들이 수준에 맞게 쓰는 작업이다보니 초등학생이 이해하자니 어려울 것 같고, 또 중학생이 보기에 그림이 유치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요. 고생한 만큼 애착도 많이 가지만 수준과 분량문제로 삭제된 정보들이 많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정보위주로 책을 만들다보니 흥미를 가질 만한 스토리를 만들지 못한 것도 그렇고요. 솔직히 책을 만드는 어려움이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실함은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자칫 난잡하고 복잡해 보이는 책 속 그림에도 다 이유가 있다. “최근 그림책 추세에 맞게 심플하게 그릴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여러 번을 봐도 새롭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편집장의 의도다. 책을 보면 같은 강아지가 각 장마다 여러 가지 캐릭터로 등장하는가 하면, 주변인물의 말풍선이나 행동들이 다양하고 코믹하게 표현돼 있다.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펼쳐볼수록 새로운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편집장이 제안하는 시리즈 활용법 하나. 주인공 석봉이와 친구들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 해결하는 2권의 내용처럼 아이들이 이 책을 들고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 순서에 따라 도서관을 ‘체험’ 하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이편집장은 말한다.

“국가적으로 도서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임은 물론이지요. 외국에서는 노인과 거지들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정도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어요.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편견 대신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겠지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도서관이 동네마다 있는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서지정보: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전9권)

‘도서관이 미래다’ 시리즈 | 김동명 · 에듀트리션EduTrition 글 | 위싱턴

Wishingstar 그림 | 남태우 감수 | 각권 약 60쪽 | 각권 값 11,000원

1권 《첫발걸 도서관》

2권 《도서관을 점복하다》

3권 《도서관은 보물창고》

4권 《학교 도서관이 즐거워》

5권 《학교 도서관 문화체험기》

6권 《도서관이 들려 주는 좋은 책 이야기》

7권 《도서관에서 날개달다》

8권 《세계로 통하는 도서관》

9권 《유클리드에서 유티퀘터스까지》